

각 시 바 위

김 철 진

먼 옛날 녕변 약산의 옥계골에는 늘그막에 본 딸 자식으로 하여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난 리서방부부가 있었다. 부모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덕인지 아니면 산천이 류달리 수려해서인지 나서부터 그 모습이 청신한 한떨기 꽃같이 아름답던 그들의 딸자식은 처녀꼴이 잡혀갈수록 보는 사람마다 허를 차지 않을수 없도록 이쁘게 번져갔다. 얼마나 이뻐하면 낮가림 잘하는 아이도 려임의 품에만 안기면 울음을 툇 그치고 눈만 데르륵 굴러군 할 지경이었다.

결불안이라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았다.

착하고 어여쁜 딸자식을 둔것으로 하여 사는 보람이 날마다 커가던 평강로친에게는 이즈막에 와서 한가닥 근심이 처마끝 고드름처럼 길어지고있었다.

《마누라, 명년이면 우리 내외 만나 오십년이 되는구려. 옛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다녀와 몇천년을 살았다지만 인간세상에서 부부내외 이만큼 함께 살았으니 흔치 않은 복이 아니겠소. 이제 죽어 무슨 여한이 있겠소만 아무래도 저 애의 뒤일만은 걱정이 되는구려.》

《글썸말이우다. 요전에 말있던 김첨지댁에서 사람이 또 왔됐수다. 애는 또 같은 소리구요. 흑시...》

사실 이들내외는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딸자식을 보면서 무던하고도 대가 있는 총각을 데릴사위로 맞아 세간도 물려주고 자기들이 부쳐오던 반나절같이 소작땅도 물려줄 생각을 하고있었다.

이렇게 작정한 그들에게 있어서 김첨지네의 청혼을 외면하는 딸애의 처사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데릴사위로 맞을만한 그런 총각이 나타나기를 세월없이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모들과는 달리 딸 려임의 가슴은 봄날의 하늘을 나는 종다리वाद 같이 한없이 부풀어오르기만 하였다.

사실 려임의 가슴속에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잡은 한 총각이 있었다. 그 총각으로 말하면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삼밭골삼촌의 집에 었혀사는 터였다.

그를 처음 만난것은 지나간 겨울 어느날이었다. 천성적인 약질에 고된 일로 해서 생긴 고질병이랄가 해수병으로 고생하던 려임의 아버지는 겨울에는 거의나 바깥출입을 못하고 앓아눕군 하였다.

었다.

하여 겨울이면 어머니나 려임이가 뽕나무를 해오군 하였다.

그날도 려임이는 뽕나무를 한단 큼직하게 묶어가지고 골짜기로 내려오고있었다. 전날밤에 무릎을 치게 내린 눈으로 하여 가파로운 산길을 내리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무거운 나무짐까지 있었던지라 려임이는 그만 발을 헛짚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다. 그때 총각도 나무를 한지게 해가지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고있었는데 나무단과 눈무지가 움썰거리는데 그의 눈에 띄었다.

바빠 달려가 나무단에 깔린 사람을 안아일으키던 그의 몸은 잉겔불을 안은듯 달아올랐다. 머리와 몸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난 그 사람은 어느 사내아가 아니라 다 자란 처녀가 아닌가.

《고마와요.》

은소반에 옥구슬 굴리는듯 한 처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총각은 자기를 가다듬었다.

《고맙긴, 난 삼밭골에 사오이다. 이 심산속에서 눈속에 아주 묻히면 어쩔려구... 그 집엔 남정손이 없는가보오이다?》

려임이는 사경에서 구원해준 고마운 생각에 부끄러움을 잊고 집사정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러는새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누엿누엿 내려앉고있었다.

처음 만난 총각과 마주서서 사설을 늘어놓은것이 쑥스러웠던지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려던 려임이는 《아!》하고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아마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며 발목을 단단히 상한 모양이었다.

이날 총각은 만류하는 처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지계에 올려앉혀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은 그후에 여러차례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가슴속에 봄풀싸파도 같은 애뜻한 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려임은 총각과 만날수록 그의 사려깊은 정성에 마음이 끌리였고 그럴수록 의지하고싶어졌다.

그런데 이들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었다. 총각이 3년을 기한으로 수자리하러 북관변방으로 나가게 되었던것이다.

수자리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만난 총각은 려임의 손을 꼭 감아쥐고 3년만 기다려달라는 한마디 말을 무겁게 남기었다.

어느덧 양춘가절도 지나고 류두를 가까이하는 한

여름이 왔다.

호수처럼 잔잔하던 려임이의 집에 환난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동이를 이고 박우물에 물을 길러 나갔던 려임이가 더위를 피해 약산에 들놀이오던 유부자의 눈에 걸려들었던것이다.

유부자는 통추벌과 팔원벌을 비롯하여 아근의 논밭을 독차지하고 주변 십여개 마을사람들의 명줄을 거머쥔 대지주이다. 우물에 와서 바가지를 받아온 유가의 걸람스런 눈길이 려임을 붙잡고 놓을 줄 몰랐다.

그날 저녁 려임의 집을 찾아온 말라쟁이 마름이 한 말은 그의 집에 전에없던 그늘을 던지였다.

《이 집에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졌수다. 유부자 어른께옵서 이 집 귀동너를 기특히 여기사 작은덕으로 두시겠다니 이 아니 경사요. 또 그렇게만 되면야 어련히 령감로친이야 한늬 호미자루신셀 면하지 않을라구, 흐흐흐...》

대바르코 순진한 사위를 맞아 옥처럼 키운 외동딸도 저들처럼 오손도손 해로하길 것처럼 바랐더니 첩이란 무슨 날벼락이냐!

이날 저녁 려임이는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이웃마을 삼밭골총각과의 사연을 자초지종 터놓았다.

다음날 이른아침이었다.

집앞 돌배나무에서 까치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한참만에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인기척에 려임의 아버지는 한뭇을 나았으며 옷방문을 열었다. 뜻밖에 토방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삼밭골총각의 삼촌이었다.

《이렇게 기별도 없이 뛰어드는것이 례의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사정이 막급한것 같아 이르렀소이다. 실은 조카애가 댁의 귀동너를 마음에 두고있기에 전부터 한번 소통하려던 참이였소이다. 헌데 어제 저녁 듣자하니 댁의 따님을 유부자가 탐을 낸다니 체면불구하고 찾아뵙는바입니다.

애는 비록 댁의 따님보다는 좀 짝지더라도 성정이 강직하고 식자도 바이 있소이다. 량친께서 받아주신다면 옥계골에서 살도록 해도 무방하거니와 애들의 혼사가 성사되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총각의 삼촌도 조카와 려임의 남다른 언약을 알고있는 모양이었다.

하여 이날 총각의 삼촌과 려임의 부모들사이에는 혼약이 맺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는 펄쩍 뛰었다. 한식경이나 벼룩썩는 상을 하고있던 유가의 망작같은 상판에 어디 그럴테면 실컷 그래봐라 하는 살기가 서려돌기 시작했다.

곡식이 여물기 바쁘게 려임이의 집에 들이닥친 유가집의 하인인 말라쟁이네들은 갖은 명목에 걸어 지어놓은 낱알을 다 걸어갔고 땅까지 빼앗았다.

그날밤 려임이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아버님,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녀자로 태어나 대가 끊기게 하였삽고 소년로 하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깊은 불효가 없는가 아옵니다.》

《자고로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는 법이나라. 자식을 키우며 대가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후대를 남기고 후대를 위해 사는것이 세상 리치일진대 어찌 천륜을 거스르며 백년도 안되는 인생을 부끄럽게 하겠나. 다만 걱정되는것이 있다면 네 량군이 돌아올 때까지 내 명이 끊기지 말았으면 하는거다.》

리씨내외는 땅을 빼앗긴 그때로부터 생업에 사활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십리가 넘는 읍거리에 파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로 여겼고 여가시간에는 식량보탬을 위해 송기를 벗기고 칩뿌리도 캐였으며 도토리며 밤을 비롯한 산열매도 거두어들였다.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서도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란 모르는 어머니도 샅일에 밤가는줄 몰랐고 낮에는 가을걷이한 논밭들에서 이삭을 줍곤 하였다.

딸자식의 행복을 위해 고생스러운 길을 스스로 택하고 그 길에 성큼 뛰어들 부모님들의 사심없는 정을 시시각각 느끼며 벼들을 떠날줄 모르는 려임이었다.

그러던 이듬해 정월도 지난 어느날 마음을 도슬러먹어서인지 한해겨울을 무탈하게 넘긴다 했던 아버지가 몸져눕더니 열흘도 넘기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려임이는 짝을 잃은 외기러기인듯 상을 당해서부러는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러오던 어머니까지 잃게 되었다.

런이어 당하는 불행으로 하여 려임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인정많은 동네사람들에 의해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저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늙으신 부모님 생각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그러는 그의 눈앞으로 어렴풋이 안겨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북방의 흑한속에서도 자기와의 언약을 굳게 믿고 상봉의 그날을 고대하며 곳곳이 견디어내고있는 정든 총각의 모습이었다.

(그렇다. 죽어서는 안된다. 선의를 저버린다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죄를 짓는것이다. 가자, 그것을 찾아 변방으로 가자.)

이를 사려물고 일어난 려임은 개울가로 나가 시내물을 거울삼아 머리를 틀어넣어 출가한 녀인의 머리모양으로 꾸미었다. 비장한 각오로 가슴을 들먹이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만사가 용이하게만 여겨졌다.

밤새 길떠날 차비를 한 려임이는 날이 푸름해지자 북관땅수자리를 바라고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한식경후에는 말라쟁이네들도 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려임이가 량친을 잃고 홀로 남게 되자 음흉한 유가가 그의 거동을 지켜보게 하였던 것이었다.

정오무렵 한절반 뛰다싶이 하며 줄행랑을 놓던 말라쟁이의 뺨새눈에 멀리에 있는 산굽이를 돌아서는 녀인의 형체가 띄웠다.

《조년이 분명해.》

말라쟁이는 이렇게 패재를 부르며 자기의 동료들을 재촉하였다.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던 려임은 즐지에 오장이 녹아내리는 듯 하였다. 미친듯이 활개짓을 하며 달려오는 세명의 장정중 한명은 분명 전에 몇 번이나 보아 익혔던 그 말라쟁이가 아닌가.

이제 행길을 따라가다가는 영낙없이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려임은 옆에 보이는 산을 바라고 숲속으로 꺾어들었다.

산중턱까지 올라 돌아보니 어느새 그들도 산기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케가 굴러짐을 직감하는 려임의 뺨배인 얼굴에 결연한 빛이 어리었다. 변방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총각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들었다. 이어 딸자식을 위해 애쓰시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눈뿌리를 아프게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리는 듯싶었다.

《예로부터 목숨이 티끌이라면 의리는 산갈다고

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신의가 있어서니라. 나라에 충성함이 장부의 제일가는 의리라면 아녀자의 첫째가는 의리는 지아비를 따름이니라.》

(아, 이 몸이 못 가면 녀이라도 가련다.)

려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입술에 피가 지도록 이를 악물었다.

한동안이 흘러 성기여가는 안개발속에 종전모습 그대로나 숨결없이 굳어진 려임이와 인륜을 거스르려던 세 놈쟁이들의 모습이 바위돌로 되어 나타났다.

약속을 지키고 순결한 모습 보이고 싶은 그 매운 총절에 하늘도 감복했구나!

프락을 오락가락하던 유가는 청천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른 벼락에 숫검댕이가 되어버렸다.

그후 실물그대로 굳어졌던 려임이는 번을 마치고 돌아온 총각에게 아릿다운 자기 모습을 보인 다음에야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

이 바위는 오늘의 녁변음으로부터 90여리 떨어진 수양리와 천수리경계에 있는데 후세사람들은 그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불러온다.

지금 그 각시바위가 있는 산기슭에는 널직한 도로가 감돌아 지나갔다.

이곳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갈 때면 의례히 이 전설을 떠올린다고 한다.